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위치는 수빅에 있습니다. 어학원에서의 수업과 액티비티가 진행됩니다. 겨울에는 건기라 비가 많이 안 온다는데 이번에는 우기라 그런지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대표님, 이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모두 착하시며 학생들 말을 최대한 귀 기울여주십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하루 8시간 씩 수업을 나갑니다. 1대1 4시간, 그룹 수업 4시간이며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1대1은 단어 2시간, 토픽하나 잡고 회화 1시간, 영어관용구 1시간으로 4시간이고 그룹은 이야기 하나 읽고 문제풀고 토론하기 1시간, 제일 재미있는 MMC 클래스 1시간, 토익스피킹 1시간, 하나 주제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과 자신의 의견 말하는 수업 1시간입니다. 수업방법은 자신이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선생님께 수업흐름을 맡기지만 추가적으로 @@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준비해주십니다. 분반은 처음 와서 레벨테스트 하고 분반됩니다. 등수 써져있는데 딱히 상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십니다. 과제는 내주는거 거의 없고 있어도 읽어오기 정도? 단어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조금 빡빡한 경우가 없지 않아서 모르는 단어 먼저 찾아가고 수업 때 단어 뜻 보면서 설명 들으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액티비티는 주중에는 수요일, 금요일마다 합니다. 그리고 안바야 코브(1000페소씩 건습니다.), 요트 투어(태풍 와서 취소됐습니다.), 바비큐파티 등이 있습니다. 수영복 안 가져가면 리조트에서 수영을 못하니까 꼭 가지고 가세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햇빛이 살인적입니다. 처음에 클락 공항에서 버스타고 어학원으로 가는 데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를 3번이나 반복해서 큰일났다 싶었는데 비가 자주 오고 자주 마르고 하다 보니 엄청 덥지는 않았습니다. 혹 야외에서 활동해야하는 경우에는 모기퇴치약을 꼭 사가세요!
안전	필리핀은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수빅은 마닐라랑 같은 섬이고 제일 안전합니다. 시내로 이동할 때는 꼭 크로스백이나 힙색 안에 핸드폰, 지갑 넣고 자신이 바로 만질 수 있는 곳에 놓고 다니는게 좋아요. 어차피 어느 곳에 가도 경찰관이 소지품 검사 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처음에는 여기서 4주 동안 어떻게 살지 싶지만,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모여서 놀면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문 닫고 살아야 벌레랑 안잘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을 닫아도 벌레가 날아다녀서 화납니다. 슬리퍼로 때려잡으세요. 바퀴벌레 나오면 그 때부터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통금은 10시입니다. 숙소 안에서는 술 갖고 못들어가요.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아침은 자율, 점심은 배고파서 안 먹을 수가 없고, 저녁은 밖에서 먹을지 안에서 먹을지 매일매일 투표합니다. 식당 밥은 괜찮게 맛있는데 기대하는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기대하고 갔다가 혼쭐남.
교통	주 교통수단은 지프니, FB, 택시가 있습니다. 지프니는 투어아니면 탈 일이 없고, 주로 FB랑 택시를 탑니다. 이번에는 학교 측에서 FB로 샌딩서비스를 해줬습니다. FB가 오긴 오는데 못참고 택시 불러서 타거나 FB탈 생각 안하고 택시를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시 부르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꼭 택시를 부르면 FB가 오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금액	449,733	40달러
카드사용금액	121,932	옷, 식비 등
합계	1,298,665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설마 없겠어? 싶지만 정말 없습니다. 수건, 드라이기, 선크림, 휴대용 선풍기 등 왠지 필리핀에서 쓰면 이득 볼 것 같은 것들은 챙겨갑시다. 정말 더우니 팔 토시나 모자 같은 것들은 꼭 챙겨가세요. 필리핀은 물가가 싸다보니 처음엔 돈 감각 없이 엄청 씁니다. 첫째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맥주 마셨다가 막판에 조금 큰일 났었습니다. 필리핀 돈보다는 달러로 환전해 가시는 것이 편하고 이득이며, 50달러면 풍-족하게 먹을거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몰라도 파견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안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그 쪽에서 물 뿌리고 놀면 모두가 친해지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벌레들은 하나같이 크고 시끄럽습니다. 날개소리에 흠칫하게 됩니다. 바퀴벌레는 남자 손가락 2~3개 붙인 크기인데 뒤집어놓으면 바둥바둥댁니다. 꽤 많이 보게 되는데 끝나고 한국 오면 한국 벌레는 귀여울 정도입니다. 방에서 벌레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학생 매니저 분들께 말씀드리면 약 뿌려주십니다. 물갈이는 최대한 빨리 해결합시다. 물갈이가 끝나면 얼음이던 뭐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2주 혹은 그 이상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빨리 물갈이하면 앞으로의 나날이 그만큼 편해집니다. 자기는 끝까지 안할거라고 하지만, 저도 그랬으며 실패했습니다. 결국 물갈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니 빠르게 끝나치고 즐겁게 마무리합시다! 정수기도 있긴 한데 냉장고 있으니까 사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귀엽습니다. 벌레는 안귀여워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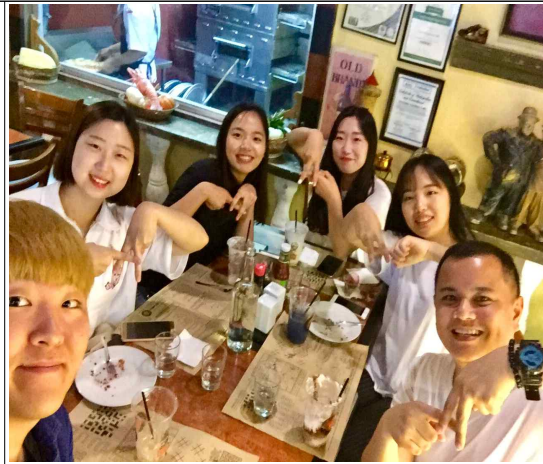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번 단기어학연수는 순천향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한 번 즈음은 해봐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주라서 네이티브 마냥 영어를 잘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모두 아시겠지만 역시나 늘어나는 것은 스피킹 스킬입니다. 2주 즈음 되면 원활하게 선생님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웠고, 형 누나들과 노는게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1, 2학년 정도면 딱 경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국제교육교류처에서 설명회를 계속해서 열고 마지막 통합설명회도 있으니 참석해서 물어볼 것들은 최대한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가세요. 형 누나들이 다 착하셔서 정말 만족스러운 4주였습니다. 술집 잘 알아보고 가면 맥주 한 병에 50페소 (약 1000원)이니까 마음껏 맥주를 마실 수도 있고 비싼 곳은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처음에 필리핀 음식이 안맛을 수도 있는게 경험이라 생각하고 스테이크라던가 자신이 먹고 싶거나 좋아하는 음식 찾아 먹으면 음식에 대해서는 따로 불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점심도 그럭저럭 먹을 만하고, 통금이 10시이긴 한데 저녁이 5시라서 안 나가고 방에 있으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최대한 나가서 노는게 좋습니다. 영어는 계속하지 않으면 유지되긴커녕 실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 유지 혹은 실력을 늘릴 예정입니다. EOP라고 English On Policy라고 영어만 쓰게 하는데 할 만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 전까지는 수업 나가는데 그 후에는 느슨하니 필리핀 말이라도 배워서 쓰면 재미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영장



주말 MMC 촬영



MMC Festival



안바야코브



수영장2



Graduation day